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남종삼 요한 (1817-1866)



남종삼은 충주에서 태어나 남상교(南尙敎)의 양자가 되었다. 1843년 문과에 급제하고 1846년 경상도 영해 군수가 된 그는 재물과 부녀자를 멀리하는 청백리(淸白吏)로서 의덕과 겸손을 갖추어 많은 이에게 존경을 받았다. 한편,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쳤으며, 1863년엔 대원군의 명으로 정3품 승지(承旨)가 되어 왕족 자제의 교육을 맡기도 하였다. 1866년 러시아인들이 국경을 넘어와 통상을 요구했을 때, 홍봉주, 이유일 등과 논의한 끝에 영불(英佛) 동맹을 맺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자는 소위 '방아책'(防俄策)을 대원군에게 건의했다. 그래서 대원군과 장 베르뇌 주교와의 면담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척신들의 압력과 장 주교와의 연락 지연, 중국에서의 천주교 박해 소문으로 그 계획은 실패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태도를 바꾼 대원군에 의해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1866년 2월, 고향인 제천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던 남종삼은 자신에게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 고양군 축베더리로 피신했으나, 2월 25일 장 주교의 하인이던 이선이의 고발로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리고 여섯 차례의 국문(鞫問)을 받고는 3월 7일, 50세의 나이로 서소문 밖 형장에서 홍봉주와 함께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성화_김태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27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에스 4,17②-③ 참조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제1독서

창세 2,18-24

화답송

시편 128(127),1-2.3.4-5.6(●5 참조)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

제2독서

히브 2,9-11

복음 환호송

1요한 4,12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복음

마르 10,2-16 (또는 10,2-12)

영성체송

애가 3,25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와 �핑크스

창세 12,13에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가문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파라오 앞에서 사라를 누이로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그라르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달라’ 사라가 아내가 되었다고 해명합니다(20,12). 그의 아들 이사악도 그라르 임금 아비멜렉 앞에서 레베카를 누이로 소개합니다(26,7). 두 사람 모두 위기를 면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기에, 대인답지 못함은 물론 거짓말한 듯한 점이 비윤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소”(4,9). 여기서 “신부”는 “누이”의 병행어로 쓰여 두 호칭 사이에 일종의 관계가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복 누이와 혼인하는 근친혼이 흔했습니다(2사무 13,13 등 참조). 지금도 중동에는 근친혼의 잔재가 남아 있어 아랍인들에게 사촌은 좋은 배우자감으로 여겨집니다. 과거 신라와 고려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도 비슷한 풍습이 존재했던 때가 있습니다. 다만 사라에 비해, 레베카는 이사악의 친척이긴 했으나 이복누이는 아니었는데요(창세 24,15), 이 점을 이해하는 데는 고대 근동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도움을 줍니다. 현재 이라크에 자리한 옛 메소포타미아 성읍 누지(Nuzi)의 관습에 따르면,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건 그의 누이가 되는 것에 해당하였습

니다. 혼인과 함께 얻게 되는 이런 이중 위상은 ‘시누이’라는 우리말 호칭도 묘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올케나 시누를 ‘sister-in-law’(법에 의한 누이)라 칭하는 영어 표현도 생각나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는 연인들이 서로를 ‘오빠’ ‘누이’라 칭한 흔적이 남아 있고(ANET 467),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 고대 수메르에도 같은 관습이 존재하였습니다(ANET 645). 이를 고려하면,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아내를 누이로 소개한 걸 두고 완전히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고대 근동의 연인 또는 부부가 서로를 ‘오빠’ ‘누이’라 칭한 마음의 기저에는 자신들의 관계가 그만큼 가깝다는 걸 드러내고자 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마치 친형제인 듯, 같은 살과 뼈를 나눈 사이인 듯 친근함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창세 2,23) 하고 외친 감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러한 친근함을 표현하며 아내를 누이라 칭한 성경 시대의 옛 관습은 오늘날 연인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상기시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연인을 ‘오빠’ ‘누이’에 비하는 관습은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말입니다. 사실 문맥 없이 ‘오빠’라는 호칭을 들으면 그들이 친남매인지 연인 사이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집트 파라오나 그라르 임금도 아브라함과 이사악의 말을 들으며 비슷하게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6장 세계 안의 대화와 우애 ② - 새로운 문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 함께 건설하기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관한 문헌을 읽을 때, ‘사회적-인격적(social-personal)’ 그리고 ‘공적-사적(public-private)’이란 대조 형용사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조는 서로 무관하다기보다 그 특성이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가르침은 그동안 집적(集積)된 사회원리들과 사회생활의 가치들을 통해 사회적·공적 현안에 대해 성찰·판단·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사회적·공적 현안인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을 위해, 곧 우애의 문화를 함께 건설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198-205항). 우선,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오늘날의 부정적 현상들을 우려합니다: ①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미디어 정보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사회 관계망에서의 소란스러운 의견 교환”을 대화와 혼동하는 현상, ② “자신만의 생각과 이해관계와 선택에 완고하게 집착하도록 유도하는” 미디어 현상, ③ “정치 캠페인의 미디어 보도에서나 나오는” “반대자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모욕을 주는 언어”가 “일상 대화의 언어가 돼버릴 정도로” 만연하게 된 현상 ④ 여론을 감추려는, “정부·경제·정치·통신·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조작 현상. 회칙은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 대화의 결여”라고 진단하며, 이는 공동선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진정한 사회적 대화와 ‘결실이 더 풍부한’ 공적 토

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다른 이들의 관점을 존중하며 그 관점이 적법한 확신과 관심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함, ② 그 역량으로 다른 이들이 말하고 행동한 의의(意義)를 파악함, ③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 ④ 계속 토의하고 점점을 찾으며, 함께 일하고 투쟁하면서도, 자신이 믿는 것에 관해 솔직하게 개방함, ⑤ 이런 과정이 결국 사회에 이롭다고 그 가치를 강조함. 더 나아가, “모든 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정보를 조작하거나 감추지 않는” 공적 토론은 ⑥ 진리를 더 잘 파악하거나 적어도 그 진리를 더 실효적으로 드러내는 데 자극을 주고, ⑦ 소극적으로는, 자기만의 전망과 제한된 관심에 만족해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게 해준다고 밝힙니다.

회칙은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특히 ‘학문 사이의 소통’과 ‘미디어와 인터넷’의 필요성과 그 긍정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하나의 실재(實在)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다른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諸) 학문들 사이의 소통은 “더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지식”의 획득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디어와 인터넷은 우리를 “다른 이들과의 관대한 만남으로, 진실을 향한 성실한 탐구로, 복무(service)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과의 밀착(密着)으로,” 궁극적으로는 “공동선의 증진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차이(差異)는 의의가 있습니다. 차이는 긴장을 일으키지만, 긴장을 해결하는 데에 인류의 진보가 있습니다”(203항). 🌀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루카 9,20)

통증 조절을 위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50대 여성 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입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이제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를 밤낮없이 돌보느라 똑같이 수척해진 남편은 아들과 함께 환자의 침상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아내가 하던 공부를 계속하라고 할 걸 그랬어요.” 환자의 남편이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꺼냈다. “다른 공부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신부님 하시는 수업에는 그 먼 데까지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자니 환자의 아들이 장난스레 대화에 끼어들었다. “우리 아빠가 신부님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빠?” 환자의 남편이 멋쩍게 웃는 모습을 보니 나는 이렇게라도 아빠를 잠시 웃게 하는 아들이 대견해 보여 한편 마음이 놓였다. 아들은 아빠의 웃음을 조금 더 보고 싶었는지 말을 이어갔다.

“신부님, 며칠 전만 해도 엄마가 아빠한테 오빠라고 하면서 막 업어달라고 떼를 썼어요.” 환자의 남편이 함께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거뿐이겠냐? 나에게 ‘여보’라고 하더라. 어쩌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라...” 순간 나는 환자가 희미한 의식 중에도 알아들었다면 서운하겠단 싶었다. 농담이란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잠깐 고민한 끝에 나는 뼈 있는 농담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보면 아내가 하러 다니던 공부도 다른 것일지 몰라요.” 나는 본당 사목을 할 때 청년들이 저들끼리 놀다가 늦게 귀가하게 되면 부모님께 나랑 같이 있었다고 둘러대곤 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때 환자가 몸을 크게 뒤척였다. 흐린 눈으로라도 이쪽을 바라보려 애쓰는 듯했다. 나는 환자가 남편과 나의 대화를 듣고 혹시나 오해받는 심정에 속이 상했을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나는 환자에게 그저 한번 웃자고 했던 농담이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몇 번을 당부하며 방문을 마쳤다.

돌아와 성체 앞에 앉으니 죽음을 앞두고 의식마저 희미해진 환자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온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 와중에도 못한 나는 다시 환자의 남편에게 बात을 돌리고 있었다. “아무리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라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농담을...”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의식불명의 환자 앞에서는 말을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론에 간혀 속으로 화를 내느라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라며 말끝을 흐리던 남편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던 것이었다. 어쭙잖은 지식에 힘을 주느라 나는 환자의 남편에게서 아내의 애정 어린 ‘여보’에 화답할 수 있었던 시간을 빼앗고, 환자에게서는 삶의 끝에서 들을 수 있었던 ‘남편의 사랑 고백’을 막아서고 말았다.

그럼에도 나의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환자의 남편과 함께 나를 가르치고 계셨으니,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루카 9,20)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당성과, “여보” 하는 아내의 사랑 고백을 이제야 들은 환자의 남편이 얼마나 똑같이 행복했는지를 다시 보게 하셨다. 사람들이 뭐라든 제자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가 소중하셨던 예수님과 똑같이, 오늘 이 환자의 남편은 삶의 끝에 선 아내가 자신을 향해 “여보” 하고 부르던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라...” 하면서 기념하고 있었던 것이다. 🍀



교구 소식

생태영성학교 - 기본과정 2기

일시 10/17~11/28, 매주(목) 11시
주제 화치 「찬미받으소서」의 이해
접수 10/11(금)까지
문의 031-850-1492 생태환경위원회

장소 백석동 성당 대강의실
준비물 화치 「찬미받으소서」, 개인컵
회비 5만원

2024 DMZ 평화의 길 도보순례

일시 11/1(금)~3(주일) [2박 3일]
대상 초3 이상 누구나 (차수별 선착순 40명)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위원회

장소 김포~파주~연천
회비 15만원

월간성서 <10월호>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1코린 13장)
일정 10/3(목), 10(목), 17(목) [총3회 업로드]
강사 김영남 신부 (광주대교구, 로마 성서대학 성서학 박사)

시청 ▶



[전시] 정일용 개인전 - 과정(Process) 展

일시 10/5(토)~18(금) 10:30~17:30 (매주 월 휴무)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문의 031-877-9153

2024년 본당 사회사목분과 연수

일시 10/26(토) 14시~17시 장소 신앙교육원 (의정부시 신흥로 261)
주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와 생태적 회개 강사 김승연 신부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접수 10/18(금)까지 문의 031-850-1472 사회사목국
※ 그 외 기타 사항은 공문 또는 교구 홈페이지 참조

한마음 어게인 Talk 특 어게인 토크 콘서트

일시 10/26(토) 10시~16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늘광장
모집 200명 (선착순)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회비 4만원 (점심식사 포함)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 접수는 단체 및 개인 신청 모두 가능 (30명 이상은 1인 3만원)

전신자 성경 읽기 10/6(주일)~12(토) : 루카 22,24-46



10/26(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인사 발령

I. 인사 발령 (9월 26일부)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No.	이름	현 임지	새 임지
1	이원석 신부	대기	면직

천주교의정부교구장

손희송



미사 · 피정 ▶▶

민족화해분과 '평화 순례' 및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일시: 10/12(토) 10시~13:30

장소: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옥녀봉 그리팅맨)

대상: 본당 민족화해분과장·분과위원

문의: 031-941-6238 민족화해위원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평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일시: 10/18(금)~21(월), 11/15(금)~18(월),
12/20(금)~2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11/1(금) 10시~15:30
[매월 첫 금요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다네이영성수련: 10/25(금)~27(일)

고3수험생 부모님피정: 11/14(목)

단식피정: 11/25(월)~29(금)

대침목피정: 12/11(수)~14(토)

노베나신창: 11/2(토)~10(주일) 9일 동안 미사와
위령기도를 봉헌해드립니다.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렉시오 디비나와 예수기도 피정

렉시오 디비나(4박5일): 10/23(수) 15시 ~ 27(주일) 13시

예수기도(3박4일): 10/29(화) 15시 ~ 11/1(금) 13시

장소: 양주 올리베타노 수도원

주제: 렉시오 디비나와 예수기도

강사: 이영근 아오스당 수사

문의: 010-5230-2986

파티마성모님 발현 107주년 및 평화통일 기원미사

일시: 10/12(토) 10시~16시

장소: 천진암 성지

문의: 010-6303-8515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말씀여행

일시: 11/1(금)~3(주일), 11/15(금)~17(주일)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본당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10/8 최영준 신부,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0/11(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문의: 010-2127-0032 찬양과 치유기도회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10/12(토) 10시, 풍동 성당

문의: 02-3673-2525

낙태 후 화해 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일시: 10/18(금)~20(주일), 11/15(금)~17(주일)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인천) / 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1지구 하루 피정

일시: 10/9(수) 09:30~17시 / 장소: 호평동 성당

강사: 오전_이영숙 수녀(마멜암 재단 이사)

오후_김대영 신부(전주교구 수류성당)

회비: 5천원(점심제공), 문의: 010-9770-0146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개관기념 가을 문화 피정

2차: 11/8(금) 15시 ~ 9(토) 13시, 공지역 작가

3차: 11/15(금) 15시 ~ 16(토) 13시, 김탁환 작가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회비: 9만원 (접수 후 입금)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매월 첫화요 오후 피정 - 토당동 마리아니스트센터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일시: 10/8(화), 11/5(화) 14시~16:30

장소: 마리아니스트 센터(덕양구 호수로 76-13)

강사: 장희성신부(마리아니스트센터 관장)

내용: 묵주기도, 성체조배, 영성강의, 미사, 안수

문의: 010-9585-6283 (무료 피정)

노고산 성지 월례미사

일시: 10/10(목) 11시 [매월 첫째 목요일]

장소: 서강대학교 성 이나시오 성당

문의: 02-705-8161 교목처

※ 미사 후 성체현시가 있습니다.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순례

생태순례: 10/28(월)~30(수), 11/14(목)~16(토),
12/7(토)~9(월)

성지순례(추라도포함): 11/3(주일)~6(수),

11/18(월)~21(목), 11/24(주일)~27(수)

연말연시(한라산): 12/30(월)~1/2(목)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1/1(금)~9(토), 12/6(금)~14(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및 10월 토요낫 치유 대피정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10/7(월) 10시~16시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중식무료)

10월 토요낫 치유 대피정: 10/12(토) 12시~17:30

미사안수 (중식 무료)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11/1(금)~3(주일), 11/7(목)~9(토),
11/21(목)~23(토)

추라도포함: 11/25(월)~28(목)

연말연시(한라산): 12/29(주일)~1/1(수)

문의: 064-796-4182, 02-773-1455

부부나들이 피정

일시: 10/12(토) 14시 ~ 13(주일) 17시, 아론의 집

강사: 한철호 신부, 홍성남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회비: 20만원 (1부부/ 비신자 가능)

신협 131-022-218086 가정선교회

(입금 후 연락)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010-3661-5500 고영민 부회장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동: 주일 16시 및 대축일 미사 등

대상: 20~30대 가톨릭 신자

오디션: 10/20(주일) 17시, 명동대성당

※ 로고스 홈페이지 입단문의 참조

성가발성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들>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교회법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교회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기관
접수: 1차_10/28(월)~11/28(목) 17시까지
2차_1/6(월)~23(목) 17시까지
모집: 제1과정(예비과정)-철학/신학, 62학점
(수업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석사과정)-교회법, 88학점
(수업료의 50%감면 장학금 혜택)
문의: 02-2164-6521
gscl.catholic.ac.kr/gscil/index.do

기도하며 기도를 배웁시다 성체조배 가을 영성학교

일시: 10/16~11/13, 매주(수) 14시~16시 [총5회]
장소: 명동 영성센터 B201호 / 회비: 5만원
10/16 이동호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10/23 신기배 신부(의정부교구 제3지구장)
10/30 송영준 신부(의정부교구 지금동성당)
11/6 김종수 신부(전 주교회의 사무총장)
11/13 안내숙 회장(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임승철 신부(서울대교구 대표 사제)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및 회의:
매월 둘째(목) 14시, 명동 영성센터 B201호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가르멜 재속회 기도 모임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장소: 가르멜 재속회관
강사: 가르멜 신부님
내용: 관상기도와 예수님 따름
문의: 010-7673-5013



안내 · 기타 ▶▶

가톨릭 여성 심리 상담소

일시: 월~금, 10시~16시
내용: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문의: 02-990-9366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문의: 031-953-3492, green1004.or.kr
그리스도수도회

가톨릭시니어합창단 순교자현양음악회 초대

일시: 10/19(토) 12:30
장소: 서소문성지 콘솔레이션을
제목: 아! 최영업토마스 2
연주: 가톨릭시니어합창단, 지휘: 이상희 모니카,
반주: 홍정희 마리로사, 연출: 심준보 베드로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탐방

12/7(토)~10(화) 부산8~마산6
12/14(토)~17(화) 대전23
해외: 2/7(금)~11(화) 베트남성지와 수도원
출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후문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2025 회년맞이 특강-희망을 희망하다

주제: 시, 희망을 읽다 / 철학과 음악, 희망을 듣다 /
그림, 희망을 보다
일시: 10/24~11/7, 매주(목) 19:30 [3강]
장소: 사랑의 힘 지하 강당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강사: 김기석 목사, 최대한 신부, 장동훈 신부
문의: 02-333-9898 한국CLC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1/18(월)~21(금) 일본 (홍성남 신부 지도, 145만원)
11/22(금)~25(월) 홍콩, 마카오 (145만원)
12/9(월)~20(금)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50만원)
12/27(금)~1/7(화) 2025년 회년 이탈리아 (560만원)
문의: 02-2281-9070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된장(1kg) 2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가능)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가톨릭 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2/20(금), 1/17(금) 이탈리아 일주 (회년 전대사)
1/7(화), 2/11(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1/17(금), 2/14(금),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1/15(수), 2/11(화), 3/11(화) 포르투갈(파티마) 일주 (9일)
3/10(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라파엘 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6(월) 멕시코(과달루페, 칸쿤) (10일)
2/24(월), 3/3(월) 출발 특가:
튀르키예, 그리스 (11일, 385만원)
라파엘특선 (동반자 100만원 할인):
11/18(월) 튀르키예, 그리스 (11일)
1/17(주일), 2/14(금),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1/15(수), 2/11(화), 3/11(화) 포르투갈 일주 (9일)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일본 가고시마 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120만원, 3박4일 / 문의: 010-3645-9028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12/3(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45만원)
1/1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0(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7(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14(금)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2일, 545만원)
3/28(금)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성심수녀회	10/19(토) 14시~17시	성심수녀회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성심수녀회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10/12(토) 13시	서울 전진상 영성센터	010-3679-7198 강 피아 수녀
	의정부가르멜 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만 45세 이하 독신여성 (예외 상담가능)		010-9199-4995

혼인 장애

가톨릭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혼인이 하느님께서 정하신 제도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 말씀대로(마르 10,2-12; 마태 19,3-12; 루카 16,18 참조) 하느님에 의해 축복된 남녀의 결합에 대해 '단일성'(單一性)과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을 천명합니다. 단일성이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불가해소성이란 혼인의 유대가 배우자의 사망 이외에는 결코 나눌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사실 자체로 영성체를 못하는 등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당사자 본인은 자신을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처럼 스스로 생각해 성당에 발길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실, 가톨릭교회 안에서는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혼인의 불가해소적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법으로 이혼했다라도, 교회법으로는 혼인 유대가 그대로 남아 일종의 '장기 별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국가법으로 이혼한 신자라 하더라도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교회법적으로 신앙생활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신자가 혼인 성사를 한 후에 국가법으로 이혼하고 재혼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회법원에 의뢰하여 이전 혼인에 대한 '혼인무효선언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당 신부님에게 용기를 내어 직접 면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신부님은 신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반대로, 신자가 혼인 성사를 하지 않고 (일반 예식장에서만) 혼인할 경우에는 혼인 장애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고해, 성체 등 성사의 제한). 교회법에 따르면, 모든 신자는 교회법적 혼인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본당 신부님에게 문의하여 교회법적 혼인 형식에 따라 하느님 앞에서 혼인 합의를 서약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 신자가 이혼을 했고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교회법적 혼인 장애에 더 이상 머물지 않기에 신앙생활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 재혼을 혼인 성사로 할 경우, 혼인 면담 과정에서 이전 혼인에 대해 '형식의 결여'로 신부님으로부터 혼인무효선언을 받고(교회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님), 교회 안에서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혼인 성사로 하지 않을 경우엔 다시 혼인 장애에 머물게 됩니다.

한편, 세례를 받지 않은 남녀가 사회혼(초혼)을 하고, 나중에 한 편이라도 세례를 받을 경우에는 세례 후 혼인 성사를 따로 거행하지 않습니다. 비신자 간의 혼인을 '자연혼인'이라고 하는데, 가톨릭교회는 이를 유효한 혼인이라고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 안에 하느님 법(양심)을 품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연혼인은 (두 당사자 모두) 세례를 받음으로써 혼인성사의 지위를 갖습니다. ☪